

‘딥시크’ 효과에 中·홍콩증시 급등… 불안요소 우려는 여전

국내 투자자, 中·홍콩증시 순매수
AI 독점 美 대체재 기대감 커져
미중 갈등 심화 등 대비 필요

#직장인 장종훈(38)씨는 지난달 홍콩증시에 상장된 샤오미 주식을 3000만 원어치 사들였다. 가성비가 뛰어나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을 얻은 샤오미의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자, 추격 매수에 나선 것이다. 샤오미 주가는 스마트폰의 성공에 이어 전기차 사업까지 호조를 보인 덕분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장씨는 “매수 가격대가 좀 높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증시 격언을 믿고 투자했다”고 말했다.

최근 홍콩·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타자 국내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추격



홍콩거래소(HKEX)에서 준철 이후 첫 개장을 맞아 징을 치고 있다.

/뉴시스

매수에 나선 것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8일(결제일 기준) 국내 투자자는 홍콩 증시에서 3억7017만 달러어치 순매수했다.

1월 만 해도 개미들은 1596만달러 매도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2월 1억8864

만달러 순매수했고, 이달에는 1억9749만 달러 순매수 중이다.

개미들은 중국 본토 쇼핑에도 나섰다. 올해 들어 2821만7647달러 순매수했다.

중국과 홍콩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9월부터다.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내수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다. 지

난 4년간 부진했던 홍콩 증시는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 효과에 힘입어 올들어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 기술기업에 대대적 지원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이 ‘AI 독점’ 지위를 지켜온 미국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한때 투자자를 공포로 몰아넣은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도 안정권에 진입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ELS는 2022년 기초자산인 홍콩 H지수 4938~8789 구간에서 발행됐다. 현재 지수는 9000선을 넘나든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딥시크로 인해 혁신이 미국 빅테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중국 기술업체들의 가치 대비 시가총액은 미국 업체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

해 들어 중국 테크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기업의 부상(딥시크 효과), 정부 규제 완화 후 육성 정책 전환,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등이 차이나 테크 밸리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고, 중국의 고질적인 부채 문제와 보호무역주의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전 연구원은 “홍콩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추가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과 미중 협상 지연으로 인해 4월 초까지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으로 ▲첨단 제조 ▲낙폭 과대 플랫폼 ▲내수 소비주를 꼽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계속 늘어나는 불성실공시… “강력 제재 필요” 거래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올해 38건 지정… 코스닥 가장 많아
상장유지 요건 강화에도 실효성 의문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성실공시 퇴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시를 늦게 하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38건 중 코스닥 종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와 코넥스는 각각 11건, 2건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 내용을 번복·변경했을 때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는 제도다. 주요 유형으로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 변경 등이 있으며, 특히 유상증자 철회, 단일판매·공급계약 변경, 단기차입금 증가 지연공시 등이 주요 사유로 꼽힌

다. 이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이 누적돼,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벌점이 누적된 기업은 총 92개사로, 이 중 15점 이상인 기업도 10개사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성실공시가 반복될 경우 시장과 공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투자심리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유상증자 발행금액 관련 공시변경으로 지난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최근 5%가량 하락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밸류업’ 정책은 공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치 제고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어, 불성실공시 증가세는 정책 실효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시 관리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불성실공시로 지정되면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경영투명성과 주시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재금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금양의 경우 유상증자 공시 번복으로 인해 벌점 7점과 제재금 7000만원이 부과됐을 뿐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은 어차피 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시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공정 공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공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벌금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금투협·증권사 등과 구축 시연회 가져
이북현 “자본시장 신뢰회복 기여 기대”

한국거래소는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주요 국내 증권사 및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한국거래소·금투협, 업계 등과 함께 2023년 11월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무차입공매도가 반복 적 발생에 따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작년 7월부터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했으며, 현재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거래소는 이번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 매도가능잔고 초과 여부를 판단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연회는 이달 31일 예정돼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 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투



(왼쪽부터)정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북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공매도 적출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매매정보와 잔고정보를 대사하는 NSDS 시스템 운영을 현장에서 시연해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출 환경을 재연하는 방식이다.

이북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산화가 우리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주의 보호, 외국인의 투자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시연회가 불법 공매도를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장관리자로서 정교한 시장감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

홈플러스 전단체 피해규모 300억 추정

등급 하락 인지하고도 발행 의혹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가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단체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이 19일 오전 11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있는 광화문 D타워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체 원금반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모인 피해자들은 약 7~80명이며,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

졌다. 피해 발생 초기 단계인 만큼 피해자 및 피해액 규모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날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MBK파트너스는 우리 피해자들이 이번 사재 출연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회생법원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주겠다고 말했다”며 “이건 결과적으로 피해액의 10% 주고 말겠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에 달려가 가장 말단에서 판매했던 증권사와 치고받고 싸워서 받아내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뿐만 아니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채권이 전액 변



19일 오전 11시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있는 광화문 D타워 앞에서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체 원금반환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자들은 사측에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제되는 것을 목표로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대위는 구체적인 유동화증권 변제 계획도 밝히지 않았고, 회생절차에 따르겠다는 부분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하은 기자

TIGER 커버드콜 ETF, 주식형 수익률 1위

미래에셋운용, 이달 특별배당 실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커버드콜 ETF’가 국내 및 해외 주식형에서 각각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1.91%다. 올 들어 우수한 수익률을 지속해오며 이달

말 특별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TIGER 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배당성장성을 갖춘 국내 우량기업에 투자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꾸준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배당과 자산주 매입 등 주환원을 확대하는 배당성장주에 집중 투자해 자본 차익과 배당 수익을 균형 있게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